

3/22/20

설교 제목: 전지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9 장 1-17 절

-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창 9: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 (창 9: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 (창 9: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절관주** 민 35:31, 행 17:26
- (창 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 (창 9: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창 9: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 (창 9: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 (창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창 9: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 (창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 (창 9: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 (창 9: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절관주** 출 28:12, 사 54:9

(창 9: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 9: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임의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간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전지전능 하심으로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셔서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마다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전지전능 하심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면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직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창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 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부패한 세상을 보시고 노아에게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시며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노아와 맺은 언약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 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 15: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최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 15: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본문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시고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었습니다.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고 남은 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은 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짐승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 9: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짐승과 새와 고기를 사람의 손에 붙여주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삶에게 먹거리로 모든 산 동물을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먹거리로 채소와 나무 열매를 주셨었는데 이제는 모든 산 동물까지 주신 것입니다.

(창 9: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 9: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이와같이 사람의 먹거리로 식물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허용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피'입니다.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명문화되었는데 후에 신약 아래서 폐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의 피를 찾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 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짐승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람이 형제를 죽였을 경우 사형시킴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1 절에서 주신 복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 9: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9: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창 9: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창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 (창 9: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 (창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 (창 9: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 (창 9: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 (창 9: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 (창 9: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 당신도 무지개를 보면서 당신이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의 삯이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희생 제사는 피흘림을 통하여 죄를 속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 곧 피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희생 제사는 짐승의 피흘림을 통하여, 신약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죄를 속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속량을 이루실 구원 역사에 대한 예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 9: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즈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 나자빠지고 세상은 일시에 SHUT DOWN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류의 1/3 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계 9: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계 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계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지개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지개 증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영원히 유효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는 제 가슴이 환희로 뛰며 춤을 춥니다.

William Wordsworth (윌리엄 워즈워드)의 Rainbow(무지개)란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A Rainbow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저 하늘 무지개를 보노라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